



1844년 6월 27일 오후, 폭도들이 일리노이 주 카테지 감옥을 습격하여 선지자와 하이럼 스미스를 살해했다.



순교: 선지자가 자신의 피로 간증을 인봉함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으니”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43년과 1844년의 겨울과 봄은 조셉 스미스의 적들이 그를 죽이고 교회를 멸하려고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부에 큰 긴장감이 감돈 시기였다. 선지자는 지상에서 자신의 성역을 곧 마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자주 만나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교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신권 열쇠를 주었다. 이러한 준비는 1844년 3월에 사도들과 몇몇 다른 측근들을 만났을 때 절정을 이루었다. 이 특별한 평의회에서, 선지자는 자신이 죽고 나면 교회를 관리하라고 하면서, 그가 이미 그들에게 교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의식, 권세 및 열쇠를 부여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저는 이 교회를 인도하는 의무와 책임을 여러분에게 넘겨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임을 받아들여 당당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잠시 저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¹

1844년 6월 10일, 나부의 시장이었던 조셉 스미스와 나부 시의회는 *Nauvoo Expositor*(나부 익스포지터)와 그것을 인쇄하던 인쇄기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Nauvoo Expositor*는 선지자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나부 현장의 철회를 요구한 반몰몬 신문이었다. 시 당국은 이 발표가 폭도들의 난폭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다. 시장과 시의회가 취한 조치의 결과로, 일리노이 주 관리들은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 그리고 다른 나부 시 관리들에 대해 근거 없는

반란 죄를 뒤집어씌웠다. 일리노이 주 토머스 포드 주지사는 그들에게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 있는 법정에서 배심원들 앞에 서도록 명령했으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조셉은 카테지로 갈 경우, 자신의 목숨이 자신을 위협하는 폭도들 때문에 큰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폭도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뿐이라고 믿고, 조셉과 하이럼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서부로 떠나기로 했다. 6월 23일, 그들은 미시시피 강을 건넜으나, 그날 늦게 나부에서 온 형제들이 조셉을 찾아 말하기를 만약 그가 카테지 관리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군대가 도시를 침공할 것이라고 했다. 선지자는 정부 관리들과 폭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투항하기로 했다. 6월 24일,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부 시 관리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카테지로 간 후, 다음날 카테지에 있는 군 관리들에게 자진 투항했다. 형제들이 첫 번째 고소와 관련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후, 그들은 일리노이 주에 대한 반역죄로 거짓 고소되어 다시 체포되었으며, 카테지 감옥에 투옥되어 심리를 기다렸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중 선교사로 떠나 있지 않았던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 장로는 자진해서 그들과 함께했다.

1844년 6월 27일 오후, 그 몇몇 형제들은 아무런 위안도 받지 못하고 감옥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아름다운 테너 음성을 지닌 테일러 장로에게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곧 노랫소리가 들렸다. “슬픔에 잠긴 나 그네 내 옆을 지나가면서 거절할 수 없는 도움 나에게 간절히 구할 때.”² 테일러 장로는 그 찬송가가 “우리 모두의 영이 낙담하고 무겁고 침울한 때에 우리가 느꼈던 감정에 어울리는” 곡이었다고 회고했다.³

오후 다섯 시가 조금 지난 후, 수많은 폭도들이 감옥으로 몰려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발사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이 사악한 행위가 자행되었다. 하이럼 스미스가 먼저 총에 맞아 즉사했다. 리차즈 장로는 기적적으로 가벼운 부상만 입었고, 테일러 장로는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구했으며 이후 제3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선지자 조셉은 창문으로 뛰어갔고 총에 맞아 사망했다. 회복의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은 그들의 간증을 피로써 인봉했다.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가 지상에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를 보호하셨다.

1842년 8월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전능하신 주께서 오늘날까지 저를 보호해 주셨으므로, 제가 성도들의 단합된 신앙과 기도로 이 생에서 제 사명을 완수하여, 땅과 지옥의 모든 권능이 결코 마지막 날 충만한 신권의 권능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것을 확고하게 세울 때까지 저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⁴

1843년 10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업을 멀하려 하는 온 세상에 도전하며, 제가 모든 일을 마치고 죽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은 결코 저를 죽일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⁵

1844년 5월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저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⁶

1844년 6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의 목숨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백성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겨우 육신을 죽일 뿐이며 그것이 그들 능력의 한계입니다. 친구 여러분, 굳건히 서고, 결코 겁내어 피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영생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며, 해의 왕국에서 통치권과 영원한 주권으로 다스릴 것입니다.”⁷

1844년 6월 27일 이른 아침, 카테지 감옥에서 조셉 스미스는 에머 스미스에게 급하게 편지를 썼다. “나는 내게 죄가 없음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알기에 운명에 따르고자 하오.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오 ... 반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을 것이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바라오. 아멘.”⁸

**조셉 스미스는 죽기 전에 십이사도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인봉하신 모든 신권 열쇠와 권능을 부여했다.**

제4대 교회 회장,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회고했다. “[조셉 스미스는] 생애의 마지막 겨울에 약 서너달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지내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단지 몇 시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의 의식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다른 것들도 가르쳤습니다.”⁹

1844년 3월 사도들과 모임을 가졌던 조셉 스미스에 대해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 그는 세 시간 가량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은 타 버릴 듯한 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호박(보석의 일종)같이 맑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의 충만함을 설명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생명과 구원에 대한 모든 열쇠, 모든 권능, 모든 원리를 제 머리 위에 인봉하셨습니다. 이 여러 원리들과 신권과 권능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 지상에 세우신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십이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머리 위에 인봉하신 모든 열쇠, 모든 권능, 모든 원리를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인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위대한 구속의 사업과 일을 하며 살아 왔습니다. 저는 성전이 세워진 모습을 볼 때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때까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왕국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임을 맡아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징죄 받을 것입니다.’”¹⁰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 [십이사도]는 … 지난 [1844년] 3월 하순에 나부 시에서 열린 평의회에 참석했습니다. …



윌포드 우드럽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생애의 마지막 겨울에 약 서너 달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지내면서, 그들을 가르쳤으며 …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다른 것들도 가르쳤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이 평의회에서, 조셉 스미스는 약간 우울해 보였으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서두르라고 명하십니다. … 중요한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저의 원수들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제게 있는 열쇠와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공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경우 저는 살인자들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며, 저는 저의 일을 마쳤다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놓여졌다는 것을 알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길 때까지 지금부터 이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은 십이사도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는 없을 것이며, 여러분 중 누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정원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권능과 열쇠들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때 그가 한 말 혹은 그의 감정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한 후에, 그는 계속해서 바닥을 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깨에서 그 책임을 내려놓으니, 마치 코르크처럼 가벼운 느낌입니다. 저는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저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¹¹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팔리 피 프랫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죽기 전에 자주 십이사도를 불러 하나님의 왕국과 의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모든 일들을 가르치도록 인도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기초를 놓은 것은 자신이지만, 완성하는 일은 십이사도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준비를 서두르고, 십이사도들에게 모든 의식, 열쇠, 성약, 엔다우먼트, 그리고 신권의 인봉 의식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성소성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엔다우먼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방침을 세워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짐을 여러분의 어깨에 지우시고 저를 잠시 쉬게 하시려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시현에 따라, 그리고 하늘에서 알려진 모형에 따라, 왕국 건설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위임함으로써 저의 모든 일을 마쳤으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¹²

제2대 교회 회장인 브리검 영은 이렇게 가르쳤다. “조셉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도 직분에 속한 모든 열쇠와 권능을 우리의 머리 위에 부여했으며,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도 조셉과 십이사도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조셉은 십이사도에게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초를 놓았으며 여러분은 그 위에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어깨 위에 왕국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¹³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위해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다.

교리와 성약 135편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존 테일러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 책과 몰몬경의 증거를 인봉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가 순교하였음을 발표하노라. 이들은 1844년 6월 27일 오후 5시경 카테지 감옥에서 150명에서 200명의—검게 칠한—무장 폭도들에게 피격되었느니라. 하이럼이 먼저 총격을 받아 나는 죽노라! 외치며 조용히 쓰러졌느니라. 조셉은 창에서 뛰어 내렸으나 도중에 총격을 받아 오 주 나의 하나님이지여!라고 외치며 죽었느니라. 두 사람은 죽은 후에도 참혹하게 총격을 받았고 둘 다 네 발의 총탄을 받았느니라.

“그때에 그 방에 있던 사람은 두 명의 십이사도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 뿐으로, 전자는 네 발의 총탄을 받아 처참하게 부상하였으나 그 후로 회복되었고 후자는 하나님의 섭리로 옷에 탄환 하나도 맞지 아니하고 피하였느니라.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다. 이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았고, 두 대륙에 그것을 출판하는 방편이 되었으며, 거기에 실려 있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땅의 사방에 보냈으며, 이 교리와 성약 책을 구성하는 여러 계시와 계명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다른 많은 지혜로운 문서와 교훈을 내놓았으며,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을 집합시켜 위대한 도시를 세워 지울 수 없는 명성과 이름을 남겼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자기의 사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고, 그의 형 하이럼도 그러하였느니라. 살아 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 도 그들은 헤어져 있지 아니하였도다.

“조셉이 암살당하기 이삼 일 전에 법률의 거짓된 요구에 자신을 내어 주려고 카테지로 갈 때에 말하기를,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나는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

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다. 나는 죄 없이 죽으려니와 나에 대하여 어느 때엔가는—그는 냉혹하게 죽임을 당하였다—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날 아침 하이럼이 갈 준비를 마친 후에—도살장으로 갈 준비라 말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하도다. 참으로 그러하였도다—그는 몰몬경 이터서 12장 끝단 부분의 다음 구절을 읽고 그 쪽을 접어 두었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로 사랑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사랑을 가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게는 상관 없이,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네 옷이 정결하게 될 것이요, 또 네가 네 연합함을 알았은즉, 네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기에 이르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제 나는 … 이방인들에게, 참으로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까지 작별을 고하니, 거기서 나의 옷이 너희의 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음을 만인이 알게 되리로다.(이터서 12:36~38) 이 유언자들은 이제 죽었거니와 그들의 유언은 효력이 있느니라.

“하이럼 스미스는 1844년 2월에 사십사 세요, 조셉 스미스는 1843년 12월에 삼십팔 세더라. 이제 이후로 그들의 이름은 종교를 위한 순교자 반열에 오를 것이요, 각 나라에 있는 독자는 몰몬경과 이 책 곧 교회의 교리와 성약이 황폐해진 세상을 구원하러 나아오기 위하여 십구 세기의 가장 고귀한 피를 대가로 지불하였음을 상기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이 푸른 나무를 해할 수 있을진대, 썩은 포도원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마른 나무를 얼마나 쉽게 태워 버릴 것인가를 생각해 내리라. 그들은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영광을 위하여 죽었으니, 영광은 그들의 영원한 상이니라. 대대로 그들의 이름은 성결하게 된 자들을 위한 보석과도 같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가리라.”¹⁴

**조셉 스미스는 지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으며,
간증을 자신의 피로 인봉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선언했다. “원수들이 우리의 선지자를 죽일 힘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은 그의 육신을 죽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성취하기로 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제가 알고 있기로 분명 그렇게 했습니다.”¹⁵



브리검 영

브리검 영은 또한 이렇게 가르쳤다. “조셉이 죽기 전까지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조셉이 죽음 일 보 직전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가 미주리에서 투옥되었을 때에도 조셉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

앙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그가 틀림없이 빠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셉은 자신이 40세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언이 틀린 예언이기를 바랐으며 그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어 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종교를 위해 순교자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예언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간증은 완전히 효력을 갖고 있으며, 그는 그것을 자신의 피로서 인봉했습니다.”¹⁶

월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간증했다. “저는 그의 죽음과 그의 생명이 취해진 방법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곤 했습니다. 만약 조셉이 그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다면, 그는 로키 산맥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경륜의 시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간증을 피로 인봉하고,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지고 영의 세계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업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에게 요구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¹⁷

제6대 교회 회장인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교훈은 ‘유언이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히브리서 9:16)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순교자들의 피는 참으로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덕하고 의

로운 사람들의 간증이 사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희생을 허락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속주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훌륭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훌륭한 사랑을 성도들과 세상에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카테지로 출발하기 전부터 죽으러 간다는 확신을 실현하고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 그들은 용기, 신앙, 사람들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사랑은 성령의 동반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훌륭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승인 받은 종이였다는 사실에 아무런 의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순교는 항상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개인적인 시련을 겪을 때 도움이 되었으며, 의 안에서 길을 추구하고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할 용기를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하신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된 후기 성도들에게 성스러운 기억으로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¹⁸



조지 앨버트 스미스

제8대 교회 회장인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으며,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나는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다. 나는 죄 없이 죽으려니와 나에 대하여 어느 때언가— 그는 냉혹하게 죽임을 당하였다—하리라.’(교리와 성약 135:4 참조)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즐거운 심판대에 서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 행한 행위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불의하게 대한다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동안 행했던 사명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에 계서 온 사업, 즉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 사업의 마지막 승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¹⁹

제15대 교회 회장인 고든 비 헝클리는 이렇게 간증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이끌었던 대업에 대해, 또한 그가 받은 신성한 부름에 대해 참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는 무방비 상태로 폭도들의 손에 자신을 넘기려던 자들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피로써 인봉했습니다.”²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 존 테일러 장로는 “슬픔에 잠긴 나그네”를 불렀다.(530쪽) 이 찬송가(찬송가 30장)를 부르거나 가사를 읽고, 그것이 조셉 스미스의 생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 찬송가는 왜 그 상황에 적절한 것이었나?
- 조셉 스미스가 신권의 열쇠를 십이사도에게 부여하는 이야기를 복습한다.(532~535쪽) 사도들은 이 경험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생각하는가? 교회 회장의 계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갖고 있는가?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에 대한 존 테일러의 기록을 공부한다.(535~536쪽)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라는 말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 카테지 감옥으로 가기 전에 하이럼은 이더서 12장 36~38절을 읽고 그 쪽을 접어 두었다. 이 구절은 조셉과 하이럼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위해 희생한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 537~539쪽에 있는 후기의 선지자들의 간증을 읽는다. 여러분은 그들의 간증에 어떤 감사와 간증의 말씀을 더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히브리서 9:16~17; 교리와 성약 5:21~22; 98:13~14; 112:30~33; 136:37~40

주

1. 1844년 3월 모임 보고 중 십이사도 선언(날짜 표시가 없는 초안)에서 인용됨; Brigham Young, Office Files 1832~1878,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2. “슬픔에 잠긴 나그네,” 찬송가, 30장.
3. John Taylor, *History of the Church*, 7:101에서 인용; 존 테일러, “The Martyrdom of Joseph Smith” 역사가 사무실, 교회사, 약 1840년대~1880년, 47쪽, 교회 기록 보관소.
4. *History of the Church*, 5:139~140; 1842년 8월 31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5. *History of the Church*, 6:58; 1843년 10월 15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6. *History of the Church*, 6:365; 1844년 5월 12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토머스 블레이크 보고함.
7. *History of the Church*, 6:500; 1844년 6월 18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History of the Church* 편집자들은 이 설교에 대한 여러 증인의 구두 보고를 하나의 기사로 집약했음.
8.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44년 6월 27일, 일리노이 주 카테지, 카테지 감옥; 그리스도 공동체 기록 보관소,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교회 기록 보관소에 있는 사본.
9. 윌포드 우드럽, *Deseret News: Semi-Weekly*, 1869년 12월 21일, 2쪽.
10. 윌포드 우드럽, *Deseret Semi-Weekly News*, 1892년 3월 15일, 2쪽; 현대화된 구두법.
11. 십이사도 선언(날짜 표시가 없는 초안), 1844년 3월 모임의 보고; Brigham Young, Office Files 1832~1878년, 교회 기록 보관소.
12. 팔리 피 프랫, “Proclamation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 1845년 3월, 151쪽.
13. Brigham Young, *History of the Church*, 7:230에서 인용; 단락 구분 변경; 1844년 8월 7일, 일리노이 주 나부.
14. 교리와 성약 135:1~6.
15. 브리검 영, *Deseret News*, 1853년 4월 30일, 46쪽; 기움임폴 삭제
16. 브리검 영, 1852년 8월 1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에서 전한 설교; Historian’s Office, Reports of Speeches 약 1845~1885년, 교회 기록 보관소.
17. 윌포드 우드럽, *Deseret News*, 1883년 3월 28일, 146쪽.
18. 조셉 에프 스미스, “The Martyrdom,” *Juvenile Instructor*, 1916년 6월, 381쪽; 현대화된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19. 조지 앨버트 스미스, Conference Report에서, 1904년 4월, 64쪽; 현대화된 철자법.
20. 고든 비 헝클러, Conference Report에서, 1981년 10월, 6~7쪽; 또는 *Ensign*, 1981년 11월, 7쪽.